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과 개정 내용

김은영 연구위원

2019년 7월 24일 고시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를 명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이에 따라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제시한 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 및 유아의 주도성과 안녕(Wellbeing)을 강조하는 국외 동향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공통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구성 체계 확립, 기존 구성 체계 유지 및 내용 간략화,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 누리과정 실행력과 현장의 자율성 강조, 평가 간략화라는 특성을 가진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 체계, 성격, 총론, 영역별 목표 및 내용에 대해 이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비교하여 개정된 특징을 설명하였다.

1. 들어가며

누리과정은 2011년 정부가 취학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비용 지원 제도인 동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 유아에게 공히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며 보육과정이다. 2011년 5월 정부는 「만 5세 공통과정」 제도를 도입하여 같은 해 7월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였다. 누리과정은 곧 3~4세까지 확대·적용되었으며, 2012년 7월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고시되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3~5세 보육과정으로 가능해 왔다.

누리과정은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켰으며,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¹⁾. 그 밖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증가되었으며²⁾, 누리과정 운영자와 이용 부모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고³⁾,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이 향상되고 처우가 개선되었다⁴⁾는 보고들이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행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누리과정은

1) 김은영·임부연·강은진·고영미·김진숙·문무경·이경화·이미화·이완정·이정옥·정선아(2018). **누리과정 개정 정책 연구**.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2) 이윤진·김지현·이민경(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6.

3) 이진화·박창현·윤지연(2015). 「3-5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실태와 정책 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5-26.

4) 조부경·김경은(2017). **교육 보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의 성과와 내실화 방안**. 유아교육연구, 19(3), 1-22.

교육과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며, 연령별로 교육내용을 제시하다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 현장에서 실행하기에 부담이 되었고, 교사들이 고시문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보다는 교사용지도서의 활동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되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는 2018년 '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 5월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가 있었고, 교육과정심의회와 행정예고를 거쳐 2019년 7월 24일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정부의 국정방향과 국정과제에 따라 개정된 첫 교육과정이라는 데 의의가 크다. 본 고에서는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개정 누리과정의 변화된 주요 골자를 짚어보며,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 실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2.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

가. 국내 동향

1)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⁵⁾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7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가지고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발표하였다. 국정목표 3번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이 중 국정전략 2번에 '국가

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이 된 것은 국정과제 50번으로, 과제목표는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과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자율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에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내용은 누리과정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간이 되었다.

2) 교육의 「유아교육 혁신방안」⁷⁾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아교육 혁신 방안」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선(公共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1) 국가 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 보장, 2) 유치원,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발달 지원, 3) 교육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5) 김은영(2019).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개발 배경 및 특성.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 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6)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7)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2018. 2).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복원, 2)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3)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4)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을 추진과제로 한다.

누리과정 개정의 근거가 된 내용은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과제 중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패러다임 전환’이다. 여기에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제시되며, 놀이중심, 유아중심의 누리과정 혁신 방향으로 1)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 2) 유아의 자유놀이 권장 및 관찰과 기록 등 유아와의 상호작용 강조, 3) 현장자율성 존중을 위해 세부내용 삭제를 제시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이상의 국정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1) 유아 중심, 2) 놀이 중심, 3) 교사의 자율성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개정되었다.

나. 국외 동향⁸⁾

1) UN의 아동권리협약(CRC)

UN의 아동권리협약은 40가지 아동의 권리를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생존과 보호의 권리는 유아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권리고, 그 동안 유아교육에서 발달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제는 유아의 참여의 권리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이다. 이를 유아교육에 적용해 보면,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놀이하고 생활할 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

아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교사는 유아를 존중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UN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1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 4번째가 ‘교육의 질’에 관한 것이며, 내용에는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포용’과 ‘양질의 교육’을 언급하고 있다. 목표 4.2는 유아교육에 관한 것이고, 4.2의 목표는 ‘질 높은 유아교육에의 동등한 접근성’이다. 본 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 중 첫 번째 지표에 건강, 학습 이외에 ‘사회·심리적 안녕’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건강과 배움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도 초점을 두어 유아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3) OECD의 2030 학습 개념틀 (2030 Learning Framework)

OECD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학습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교육 2030 학습 개념틀’을 제시하였다. 본 학습 개념틀에 의하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가 내재된 역량은 배움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안녕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침이나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보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주도성을 가지고 놀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교사는 유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8) 김은영(2019). 누리과정 개정 방향과 고시문 이해.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3.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특성⁹⁾

가. 누리과정의 성격을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에서 고시한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한 부분이다. 누리과정을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이라는 이원화된 용어에서 야기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나. 교육과정 구성 체계 확립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누락되었던 누리과정의 성격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명시하였다. 이는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으로서 전체 구성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며, 동시에 21세기 미래지향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인간상을 제시한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 측면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다. 기존 구성 체계 유지 및 5개 영역의 내용 간략화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강조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실행 될 수 있도록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기본 구성 방향과 구성 체계를 가능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5개 영역의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유아의 연령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연령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내용범주를 영역별 3개 정도로 조정하고 연령별로 제시한 369개의 세부내용을 내용과 통합하여 59개의 내용으로 간략화 할 수 있었다.

라. 유아 중심·놀이 중심을 추구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교사주도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반성에서 교사 계획보다는 유아로부터 발견되는 놀이를 강조하고, 유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놀이에서 유아의 주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시문에서 ‘놀이’를 여러 번 강조하고, ‘놀이시간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의 문장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교육혁신 방향에서 강조하는 놀이와 씬,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9) 김은영(2019).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개발 배경 및 특성.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 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함.

마. 누리과정 실행력과 현장의 자율성 강조

「2019 개정 누리과정」 총론에서는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용어 등을 조정하여 현장에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누리과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사의 자율권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5개 영역의 내용을 간략히 하고 경험과 놀이를 강조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교사용 지도서가 아닌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실행력 고취에 중점을 두었다.

바. 평가의 간략화

누리과정의 평가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그리고 활용을 기본 원리로 하는 간략한 문구로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자율적 평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4.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내용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가. 구성체계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으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총론 부분에 누리과정의 성격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신설하였으며,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내에 추구하는 인간상을 비롯하여 목적과 목표, 구성의 중점을 기술하였다. 또한 각론에서는 목표와 내용을 별도로 기술하고 내용을 연령별로 기술했던 것에서 연령별 구분을 없애면서 영역별로 목표와 내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목표와 내용을 연계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누리과정의 성격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신설된 성격에 누리과정을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5가지 특성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인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개정 누리과정은 공통성과 다양성, 전인적 발달과 행복,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함을 밝히고 있다.

다. 총론

1)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가) 추구하는 인간상

추구하는 인간상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된다. 이 중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가져온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교양 있는 사람'은 유아 수준에서 어떻게 기술되는 게 좋을지 많은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리가 되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누리과정에만 있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이다.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유아기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표 1〉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 개정 내용 요약

2019 개정 누리과정		
구성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의 성격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신설함. • 총론에서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 편성과 운영을 함께 기술함. • 각론에서 영역별로 목표와 내용을 연계하여 제시함. 	
누리과정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을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라 명시함. • 이번 개정의 핵심인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고 명시함. 	
총론	추구하는 인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함. •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은 그대로 가져옴. • '교양 있는 사람'은 유아 수준에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기술함. • 유아기에서 가장 중요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추가함.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놀이를 강조하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 형성을 명시함. • 목표는 기존 누리과정이 영역의 목표를 기술한 것과 달리,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된 목표를 진술함.
	구성의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누리과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함. • 가장 큰 변화는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하던 것에서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했다는 것임.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누리과정에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이를 명시하셨던 것을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으로 기술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해야 함을 강조함.
	누리과정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교사가 유아를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 것임. • 특히 교사는 유아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하고, 유아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함. • 유아의 놀이와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활동을 선택', '지속', '주제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등의 문구는 삭제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누리과정이 누리과정 운영 평가와 유아 평가를 별도로 기술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했던 것에서 개정 누리과정은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활용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기술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성을 부여함.
영역별 목표 및 내용	신체 운동·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범주는 신체 인식하기, 신체조절과 기본운동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를 모두 합하여 신체활동 즐기기로 기술함. •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내용에 안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모두 담고자 함.
	의사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에 바른 언어 사용 습관 대신에 상상력을 추가함. •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는 서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로 묶음.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위해 읽기와 쓰기가 아닌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로 하였으며, 문학과의 연계를 위해 책과 이야기 즐기 내용 범주를 추가함.
	사회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범주에서 나와 관련된 내용은 나를 알고 존중하기로,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더불어 생활하기로 합하여 기술함.
	예술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범주에서 예술적 표현하기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로 수정함. • 예술경험 영역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특성 때문에 내용이 가장 적음.
	자연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없었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목표에 진술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는 세부 목표를 기술함. • 내용 범주에서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는 탐구과정 즐기기로, 수학적 탐구하기와 과학적 탐구하기를 묶어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로 기술함.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하나의 내용범주로 추가함. • 자연탐구 영역의 체계적인 학문적 특성 때문에 내용이 가장 많음.

제일 중요하다고 합의가 되어 가장 처음에 제시하였다.

나)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에 ‘놀이를 통해’를 기술함으로써 놀이를 강조하고, 기존에 구성 방향에서 기술했던 ‘바른 인성’을 목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기존의 목표 진술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누리과정이 5개 영역의 목표를 기술한 것과 달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된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누리과정의 목표가 5개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누리과정의 목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구성의 중점

구성의 중점은 교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누리과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나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는 것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여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누리과정을 실행하면 이러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구성의 중점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하던 것에서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유아가 처한 상황에 의해 배제되거나 차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기존 누리과정의 바른 인성은 목적 수준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은 누리과정의 성격으로 이동하여 기술되었다.

2) 누리과정의 운영

가) 편성·운영

기존의 누리과정에서 편성과 운영으로 나누어 기술했던 것에서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편성과 운영을 함께 기술하였다. 이는 누리과정 실행 시 편성과 운영을 나누어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인 동시에 학비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 기준이 필요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었다. 다만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를 바로 뒤에 붙여 기술함으로써 운영시간이 긴 어린이집에서도 운영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기존 누리과정에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이을 명시하셨던 것을 개정 누리과정서는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으로 기술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 교수·학습

교수·학습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누리과정이 교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했다면,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가 유아를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는 유아가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지원하고,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유아의 놀이와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활동을 선택’, ‘지속’, ‘주제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등의 문구는 삭제되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를 강조하지만, 교수·학습에는 놀이 이외에 활동, 휴식, 일상생활에 대한 언급을 함으

로써 놀이 이외에 이러한 요소들도 누리과정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 평가

기존의 누리과정에서 누리과정 운영 평가와 유아 평가를 별도로 기술하고, 그 내용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했던 것에서, 개정 누리과정은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활용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고시문은 법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교사들은 누리과정 평가에서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 및 모니터링, 평가척도 등 다양한 방법, 유아 평가에서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면담 등 다양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기술하지 않고 원칙 중심으로 명시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라. 영역별 목표 및 내용

1) 신체운동·건강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관해 기존 누리과정이 능력과 습관을 기르는 것으로 기술하였다면, 개정 누리과정은 즐기고 생활을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5개의 세부 목표를 3개로 간략화하고, 내용 범주에 있어서도 신체 인식하기, 신체 조절과 기본운동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를 모두 합하여 '신체활동 즐기기'로 기술하였다. 건강하게 생활하기와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내용은 12개로 간략화 하였다. 안전하게 생활하기에서는 안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모두 담고자 하

였다. 유아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사고 빈도가 높은 교통안전은 별도의 내용으로 기술하고, 안전사고를 비롯한 나머지 내용은 하나의 내용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2) 의사소통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바른 언어 사용 습관 대신에 상상력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4가지의 세부 목표는 3가지로 간략하게 기술하였고, 내용 범주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는 서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로 묶었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위해 읽기와 쓰기가 아닌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로 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문학과의 연계성을 위해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 범주를 추가하였다.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도 12개로 정리하였으며, 유아기에는 듣기와 말하기의 경험을 가장 많이 하므로 내용 또한 가장 많다.

3) 사회관계

사회관계 영역의 목표에서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에서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5가지 세부 목표를 3가지로 간략히 기술하였다. 내용 범주는 나와 관련된 내용은 나를 알고 존중하기로,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더불어 생활하기로 합하여 기술하였고, 사회에 관심 가지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도 12개인데, 유아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타인과 어울려 지내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며, 포용이라는 세계적 동향과 국정 방향을 반영하여 더불어 생활하기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4) 예술경험

예술경험 영역의 목표 또한 능력을 기른다는 기술에서 즐긴다는 표현으로 수정되었다. 세부 목표의 수는 같지만 보다 간략화 하여 기술하였으며,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 범주의 변화는 5개 영역 중 가장 적었는데, 예술적 표현하기가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로 수정되었다. 예술경험 영역의 내용은 앞의 3개 영역에 비해 적은 10개로 정리가 되었다. 이는 예술경험이 덜 중요하다거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예술경험 영역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특성 때문이다. 유아기에는 자연스럽게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의 내용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5) 자연탐구

자연탐구 영역의 목표는 과정을 즐기는 것을 강조하고 무언가를 기르기보다는 탐구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목표에 진술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는 세부 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내용 범주에서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는 탐구과정 즐기기로, 수학적 탐구하기와 과학적 탐구하기를 묶어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로 기술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자연과 더불어 살기를 하나의 내용범주로 추가하였다. 자연탐구 영역의 내용은 13개로 5개 영역 중 가장 많다. 이는 자연탐구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거나 비중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연탐구 영역의 학문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 자연탐구 영역에 학문의 체계가 있는 수학과 과학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경험의 내용을 제시함으로 인하여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5. 나가며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정부의 국정방향과 교육부의 혁신 방안으로 추진되었지만, 혁신을 지향하는 전문가 뿐 아니라 기존 누리과정 제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교육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전국 교사들을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실 유아교육의 역사에서 유아 중심과 놀이를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 철학은 유아교육의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왔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적용되면서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기도 하였고, 누리과정이 비용 지원의 정책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책무성의 측면에서 실행해야 하는 기관 평가 지표 등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든 현장이 유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놀이에서 유아의 주도성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번 개정은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누리과정이 제정되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긴 호흡으로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컨설팅을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 시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국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해설서 등 현장 지원자료 개발 및 보급, 관계자 대상 연수, 관련 정책 연구, 홍보자료 제작 및 활용 등 후속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다시 유아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
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실천을 통해 유치
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이 자신이 만들어 가는 세

상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배우며 행복하기를 기
대한다. 유아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놀이하며 나가는 과정에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